

국제대회 유치·시설 확충...광주, 스포츠 메카로 도약

2019수영선수권 이어 2025양궁선수권·2038아시안게임 유치 추진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 유치...1900억 투입해 14개 체육센터 건립

광주시에 민선 7기 들어 메가 이벤트 개최와 유치, 대폭적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광주출신 선수들도 이 같은 스포츠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영국 스포츠마케팅 연구소 '스포츠캡'은 광주를 국제 스포츠 영향력

세계 27위, 아시아 6위로 평가했다. 광주시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38 광주·대구 아시안 게임 유치로 영향력과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한양궁협회와 협력해 이달 말까지 세계양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맹 집행위원회에서는 연말께 개최 도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8일에는 대구시청에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준비 위원회가 출범한다.

광주와 대구 연구원이 주관하는 공동 유치 기반과 타당성 조사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광주시는 스타 선수 부재, 저예산, 북한 불참 등 악재에도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낸 바 있다.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광주 선수단의 선전은 스포츠 도시 흥보에 한몫했다. 광주선수단은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20개 메달 중 금 3, 은 1, 동 1개 등 5개를 선사했다. 패럴림픽에서도 24개 중 7개(은 5·동 2)는 광주 선수단 몫이었다.

겨울 스포츠 불모지라는 오명은 여자 프로 배구단 'AI 페퍼즈' 유치를 털어냈다. 광주를 연고로 한

배구단은 오는 30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단식을 하고 다음 달 19일 광주 여자체육관에서 첫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시는 시민 스포츠 복지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FC 홈구장인 축구 전용구장을 지난해 7월 준공한 데 이어 국비 공모 등을 통해 1894억원을 들여 14개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한국수영진흥센터(2024년 완공 예정)와 서부권역 노인복지시설 내 체육센터(2023년)를 제외한 12곳은 내년 완공이 목표다.

평등산단과 빛그린 산단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오는 16일 착공하는 상무시민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무등경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북구 종합체육관, 진월 복합운동장,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등도 준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와 북구에 건립 중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면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의로운 도시 광주가 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도록 위상을 정립하겠다"며 "시민들이 직접 뛰고, 응원하는 스포츠 복지를 마음껏 누리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시 : 2021. 9. 13.(월)13:30 ▲주최 :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 14단체
'광주-무안공항 통합, 군 공항 이전 사업 연계' 방침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정부가 확정하려고 하자 13일 무안시민단체가 이에 항의하려고 국토교통부 원청 시위에 나섰다, 일부 광주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연계는 당연하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제공>

광주·무안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 연계 놓고 갈라진 광주·전남

정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발표...시민단체 등 시위·성명

'광주-무안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 사업 연계' 방침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놓고 광주와 전남지역이 갈라지는 모습이다.

무안지역 시민단체가 5차계획에 없던 '군공항 연계' 방침에 항의하려고 국토교통부 원청 시위에 나서자, 일부 광주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연계는 당연하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하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는 13일 무안군청과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 세종층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국토부는 무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조만간 확정·고시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와 관련해 "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에서 "2018년 8월 전남지사, 광주시장, 무안군수는 무안국제공항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전하겠다고 합의했다"며 "민간공항의 통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군공항 이전 사항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은 광주군공항을 민간공항과 함께 무안군에 이전하려는 기만 술책"이라며 6차 계획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민단체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연계는 당연하다"며 6차 계획안 원안 고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이나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주 민간공항의 구체적인 통합이전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는 현재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확고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4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공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법정부협체제를 통해 군공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것만이 광주·전남 양 시도가 상생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 신규 확진자 20명 중 11명 외국인...전수검사 지속

광주시가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수 검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외국인 등 고용사업장 관련 9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3명, 북구 모중학교 관련 4명, 해외 유입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3명이 신규 확진됐다. 확진자 20명 가운데 11명이 외국인이다.

광주시는 지난 3~10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내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 명령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검사가 이어지면서 내국인을 포함해 모두 2만 3000여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아직 미등록 외국인 등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2일에는 광산구 백신접종센터에서 모두 1150명 외국인에게 안전백신을 접종했다"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30세 이상은 누구나 안전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문단장 직급폐지·겸직

▶1면에서 계속

13일 문체부 관계자는 겸직 방침에 대해 "통합 문화전당의 정원이 증원·확대되면서 문화전당의 과장 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다"며 "조성사업 핵심인 문화전당 역할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조치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문단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겸직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당시에는 아문단이 축소되거나 미니부서로 전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일관되게 아문단 위상 강화를 주장하는 등 아문단 후속 조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아문단장을 겸직하게 되면 위상 강화는 고사하고 조성사업에도 적잖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성사업 역점 과제가 단순히 문화전당

을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구축하는 부분만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특성별 거점인 문화권 조성을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비롯해 지역 브랜드사업과 연계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이같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는 "겸직 방침은 조성사업 방향을 문화전당 정상화·활성화에만 목표를 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됐다"며 "나머지 역점 과제 진척률이 낮은 것은 이와 같은 아문단 위상 추락과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도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개정된 아문단 개편안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 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마작가지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겸직 방침은 조성사업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이윤배반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전임 아문단장 체제 유지 및 아문단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문법 개정안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후속조치는 마무리된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장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 정규 인원은 122명, 임명요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정규직은 40명 규모로 알려졌다.

입야, 단독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장성댐 (호) 2분,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